

법회안내

보성스님(송광사 방장) 26일 오전11시 선학원 중앙선원 큰법당 제4회 한국불교 전통선종영산대설법회 특별 초청법회. (02)732-3327

법정스님(길상사 회주) 21일 오후2시 길상사 일요법회. (02)3672-5945

정우스님(삼정불교문화포교원장) 매일 첫째 둘째 수요일 오후 7시 청와대경비대대 법회. 매일 둘째 일요일 오전10시 문산 군부대 충성사법회. 매일 첫째 셋째 수요일 오후12시 군회사무처직원불교회 법회. 매일 넷째 금요일 오후12시 한국은행불교회 법회. 매일 셋째 수요일 오후7시 인천마하연가사리법회. 매일 음력 18일 오전10시 인천 정진암 법회. 매일 첫째 일요일, 음력 1일 오전 11시 김포 선경암 법회. (0341)981-0207

일화스님(화성무우사 주지) 매일 첫째 월요일 오후6시30분 수원교도소 불심회 법회. 매일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일 18일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일 마지막 일요일 오후7시 수원 매송법회. (0339)52-7346

일진스님(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강사) 16일 오전 11시 동화사포교원 관오사 금강경 특강법회. (053)784-3669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 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차의 맛·향·빛깔을 음미하며 선다임미의 가르침을 새겨 보자. 사진은 충담재 다도시연.

신행수첩

맑은 마음의 또락으로...

여연스님 다도강좌

차의 향기에 녹아든 빛나는 세계를 넘볼 수 있게 하는 공개 강좌가 열린다. 통도사 부설 여연회는 23일 오후 2시 포교원 3층에서 여연스님(일지암)의 지도로 차의 모든 것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작은 찻잔에 맑은 차를 우려내며, 그 속에서 마음의 또락을 적셔 본래 자기로 돌아가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051)816-2241

몸과 마음의 매 '씻자'

생계사·'맑고향기' 수련회 지친 우리들의 육신을 맑혀 주고, 붓다의 말씀과 조사스님

의 활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생계사 여름수련회가 불자들을 기다린다.

'깊은 마음·참 나'를 주제로 열리는 생계사 여름수련회는 오는 7월 24일~27일과 7월 29일~8월 1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열고, 8월 3일~5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특히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수련회는 전액 무료로 실시된다. 접수신청은 27일 까이다. (0595)83-1901~2

맑고향기롭게도 제3회 여름수련회 신청자를 접수중이다. 7월 30일~8월 2일까지 성북동 길상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는 60세 미만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수련회에는 선체조, 달빛 음악회, 1080배 정진, 류시화시인의 명상음

"실직자 취업알선 해드려요"

교계 종합복지관

IMF 실직 가정의 위기 대처를 위해 교계 각 복지관에서도 지역복지 가정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알선사업, 공동작업장 설치 등을 펼치고 있다.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취업알선사업 프로그램을 개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구인접수를 시작했다. 전화로 접수하거나 직접 내방하면 된다. (0551)31-8017

김을복지관은 실직가정에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김종서박사 초청 '불교와 교육' 강연회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나. 이 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2세 교육문제는 '백년대계'를 내세우며 가정 학교 사회가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과 방법에 대해 특히 청소년문제가 범람하고 사회문제로 부상된 현실에서는 그 해답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 시대 참교육의 지혜를 찾고자 평생을 교육계에 바친 고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서울대 명예교수 김종서박사를 초청해 '불교와 교육' 특별강연회를 마련합니다.

김박사와 인연있는 불교계 주요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강연회에 교육관계자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제: 21세기에 대응하는 불교교육  
◇일시: 6월30일(화요일) 오후2시  
◇장소: 길상사(서울 성북동) (02)3672-5945

※이날 불교신행과 교육을 삶의 두 축으로 삼아온 김종서박사의 불교사상을 토대로한 자녀교육을 위한 저서가 출간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한국불교언론인회  
우리는선우·길상사

약 등 다양한 심신수련의 기회가 마련된다. (02)741-4697

무료급식·재취업 후원

옥수복지관 대바자회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IMF구제금융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행으로 '실직자 및 결식아동들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와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취업알선을 위한 기금마련'의 장에 많은 후원과 참여를 기다린다. (02)282-1100

장, 불교용품 등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실직자 및 결식아동들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와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취업알선을 위한 기금마련의 장에 많은 후원과 참여를 기다린다. (02)282-1100

"아미타축을 읊시다"

염불만일회 무용단 결성

깨달음의 길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은 불자의 사명이다. 전국염불만일회에서는 아미타축을 배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무용단원을 모집한다.

굳은 심신으로 익힌 아미타축은 오는 8월5일 금강산 건봉사 성지대회에서 공연된다. 매주 월요일 동산법당에서 한순욱씨(최승희 문하생)의 지도로 극락정토의 이상을 춤으로 일깨우고자 하는 불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한국무용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02)732-1206

나의 수행일기



함중환

(국회의원·한나라당 신도회장)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허무주의에 빠져 방황하던 나에게 대아무아(大我無我)의 이치를 깨닫게 해 지금의 나로 이끌어주었던 것이 바로 불교였다.

시골촌놈이었던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이름있는 대학 입학 시험에 지원해 학과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런데 체력장 넓이뛰기에서 그만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 당시 체력장 점수가 수험생들의 운명을 좌우하던 때여서, 감독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손바닥에 한 불이 나도록 통사정을 했으나 소용없었다. 촌놈 딱지를 벗고 번드르한 도시놈이 되어 출세기도를 무한정 달려가고 싶던 꿈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안에서 그 정도의 포용과 여유가 없는 인생사를 허무해 하며, 바위속같이 캄캄한 속세를 작파하고 산문이나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조직하고, 고향에 '일요 유아 불경학교'를 세우고, 전국에서 최초로 사찰 경내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불교 학생회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시대와 함께 호흡하기 위해 '마실법회'를 창안하여 이종물박사 등을 모시고 공공장소를 돌며 법회를 주재하기도 했는데, 그때 모였던 시민들의 재미있는 하면 광경을 우리 불교계의 대중화를 예보게 하는 대목으로서 지금 생각해도 아름다운 추억거리다.

그러나 그러한 재미있는 활동은 정계에 입문하면서부터 제약을 받았고 국회 불자모임인 정각회 간사나 당의 불교신도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전통사찰보존법, 군승과 경승의 제도화, 불교방송 개국, 중앙승가대학의 4년제 정규대학 승격,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통사찰의 보수보전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법 등 불교발전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정치도반들 '大我無我' 알았으면"

젊은불교 발원 '유아불경학교' '마실법회' 개설

노후산 대승사라는 절로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다. 별 면목이 없어 부모님께는 말씀도 못드린 채 들어선 그곳은 스님 한 분만이 남아 면목 정진중인 듯 굴었다. 그 절에서 스님의 시봉을 들어가며, 그 값으로 반

봉사를 대신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국회의사당 내에 법당을 마련하고 부처님을 봉안하던 일로서,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한마음으로 도와주던 정각회원들의 고마움이다.



결국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 종교와의 갈등으로 14대총선에서 고배를 들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강원도지사라는 감투도 얻어 향리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았으니 이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반론 어치의 봉사를 하면 천만번 어치의 은혜를 베푸시니 이래저래 빛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인간이 아닌가 하는 송구스런 마음이 든다.

아무쪼록 우리 정치권에도 '나'를 크게 생각하면 모두가 나이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며 더불어 평안한 대아무아의 부처님 은혜를 고루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나무관세음보살.

인사

동국대의료원 ◇경주한방병원 원장 이태균·진료교육연구부장 윤종화·한방내과과장 김중대 ◇분당한방병원 원장 김장현·진료교육연구부장 김경호 ◇동국한방병원 교육연구부장 구병수 ◇경주병원 소아과 과장 김우택 ◇포항병원 진료부장 오민구·교육연구부장 윤혜원 ◇기획관리실 구과과장 최진식·의료정보과장 박정우

△맑고향기롭게 알뜰시장=맑고향기롭게는 21일 길상사경내에 제4회 알뜰시장을 개설한다. 아나바다 생활운동의 하나로 점차 정착되고 있는 알뜰시장에는 재활용의류, 신도불이 떡거리, 무공해 세제, 우리 옷 등이 판매된다. (02)741-4697

△시청각자로 무료대여=인덕복지회관은 1만여권의 도서와 비디오 어학테이프 등 시청각자료를 후원받아 무료로 빌려준다. (02)385-8205

교사·미술교사=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6개월간 복지관에서 근무할 아동사회복지관 전담요원을 구한다. 또 미술관련전공자로 1년이상 근무가능한 유아 미술 산수교실 교사와 아동창작미술 교사도 모집한다. (02)985-0161

△자원봉사자·결식후원자=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아동들의 정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해 작지만 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또 결식아동 도시락배내기운동 후원자도 기다린다. 수시 접수.

(0551)31-8017 △주부수강생=개금사회복지관은 주부들을 위한 노래교실, 조리사 자격증 이론대반, 종이접기 지도사 양성반 등을 모집한다. (051)893-5034

△어린이 영어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2시 각학년별로 어린이영어교실을 연다. 발음부터 생활영어를 게임과 비디오를 통해 교육한다. (02)852-0525

경일빌딩 3층으로 이사한다. (053)951-3340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경북 경산시 사정동 50-8 대상빌딩 3층으로 10일 이전했다. (053)814-8550

△한수현 도서출판 삼양 대표는 최근 사무실을 종로구 혜화동 88-1 2층으로 이전했다. (02)762-5166~7

△대한불교청부산지구 불교청년회(회장 김수현)는 5일 부산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7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51)469-6346

이전

△대구 지비의 전화는 28일 대구시 동구 신정3동 283-6번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쉽게 풀어쓴 새로운 경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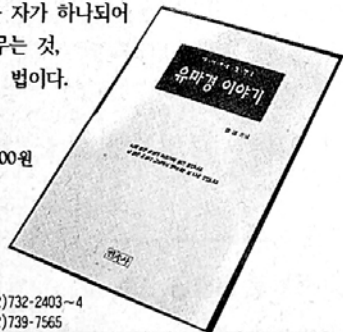
다시보는경전① 유마경 이야기

慧謙 스님

나의 병은 중생이 아프기에 생긴 병입니다. 내 병은 중생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날 나를 것입니다.

'나의 병은 중생이 아프기에 생긴 병입니다. 내 병은 중생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날 나를 것입니다.' 중생과 자기를 동체대비시킨 유마의 말이다. 너와 내가 하나되고 있는 자와 가진 자가 하나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되어 서로의 장벽을 허무는 것. 이것이 유마경사의 법이다.

신국판 240쪽/값 6,500원



다시보는경전② 관음경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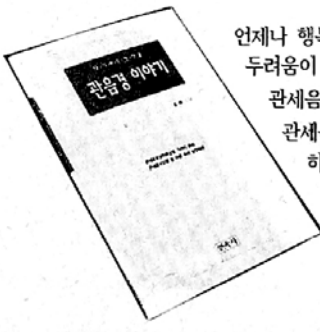
東峰 스님

관세음보살마하살을 가까이 하라. 관세음보살을 늘 마음 속에 생각하라.

관세음보살마하살을 가까이 하라. 관세음보살을 늘 마음 속에 생각하라.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염하라. 그러면 늘 평안하리라.

언제나 행복하리라. 두려움이 없으리라. 관세음보살이 되라. 관세음보살과 그대가 하나가 되라.

신국판 180쪽/값 5,500원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금세기 대표적 청정 율사이신 석성우 스님과 시인 석지현 스님께서 경전을 읽으면서 모은 감동적인 불교 명언들!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 365일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담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차분하게 들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 46만 양장 / 값 5,0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법사님 주안반사나 가까운 이에게는 선물로, 은혜 받은 이에게는 법보시로 이 책을 선물합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